

언론동향(11. 11.)

《언론보도 목차》

1. (뉴시스) ‘DM Z평화의 길’ 강화~고성 7개 노선 우선 개방 별첨
2. (경인일보) 50년 철책 쓰러뜨리고...한강 하구 희망 일으키다 2
3. (경기일보) 반세기 만에 한강 철책 제거, 성장 발전의 김포 새바람 3
4. (중부일보) DMZ에서 여성, 평화를 묻다 4
5. (기호일보) 50년 만에 군 철책 철거하고 김포, 한강하구 번영 중심에 5
6. (인천일보) 김포 한강하구 철책 철거 9년만에 재개 6
7. (인천일보) 경기문화재단 ‘렛츠디엠지’ 사업 실패 자인 7

- ※ (경기일보) Tour de DMZ 자전거 대회 社告 8



10일 오후 김포시 운양동 누산리 포구에서 열린 '한강 군 경계철책 철거 기념식'에 참석한 정하영 김포시장,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 내빈과 시민들이 철책철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급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50년 철책 쓰러뜨리고... 한강 하구 희망 일으키다

김포 軍 경계철책 철거 기념식

내달 본격 시작... 내년초까지 마무리

자전거길 등 조성 시민 조망권 향상

“하나, 둘, 셋.”

성인 키를 훨씬 넘는 철책이 뒤로 넘어가자 50년간 가려졌던 한강 조망이 한결 시원하게 펼쳐졌다. 과거 자유롭게 이곳에 드나들었을 노년의 시민들은 철책이 사라진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10일 오후 김포지역 군 경계철책 철거를 기념하는 행사가 한강하구 누산리포구에서 열렸다. 정하영 김포시장과 신명순 김포시의회의장,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은 직접 철책을 쓰러뜨리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김포시는 올해 7월 한강하구와 염하(김포·강화해협) 구간의 군 경계철책 철거사업을 착공했다. 현재 군 작전시설 보강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본격적인 철책 제거는 다음 달 시작된다. 이날 행사는 최근 휴전 이래 최초로 성사된 염하수로 민간선박 자유항행과 더불어 김포의 평화문화 비전을 상징하는 퍼포먼스였다.

김포지역 철책은 '김신조 침투사건'을 계기로 1970년대 초 설치돼 소수의 허가 받은 어업·농업인을 제외하고 한강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수단이 됐다.

시는 10여년 전부터 김포대교~일산대교(9.1km) 구간 1단계와 유엔군사령부 중립수역 영향권(전류리포구~초지대교)을

제외한 일산대교~전류리포구(8.7km)·초지대교~안암도 유수지(6.6km) 구간 2단계로 구분해 철거사업을 추진했다. 1단계 사업은 시와 삼성SDS 컨소시엄 간 수중감시장비 부적합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서 계류하면서 2단계 사업 먼저 착공했다.

그러나 일산대교~전류리포구 구간 경계를 담당하는 군 부대 측에서 송사 완료 후 1·2단계를 동시에 철거하자는 의견과 함께 군사시설물 보안 문제에 우려를 표해 협상 초반 난항을 겪었다. 시는 군사시설물 존치·보안대책을 다양하게 제시하며 설득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된 이중 철책을 모두 제거하는 염하 구간과 달리 한강 구간은 육지와 가까운 쪽 철책만 제거, 완공되더라도 시민들의 수변 출입은 계속 통제된다. 하지만 철책이 견힌 자리에 군 순찰로를 활용한 산책길과 자전거길이 조성돼 시민들의 접근성과 조망권은

향상된다.

염하 구간은 일부 철책을 남겨 테마길로 꾸며진다. 이 구간 자전거길은 철책과 접한 거침도~약암리 광역도로에 3m 폭으로 생기고, 철책이 있던 자리는 산책길로만 조성된다.

시는 내년 초까지 철책 제거를 마무리하고 내년 안에 산책길과 자전거길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소송 선고 기일이 11일로 잡힌 1단계 사업은 판결에 따라 곧 철거 여부가 결정된다.

정하영 시장은 “철책은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자 인접 도시와의 교류를 막는 장애물이었다”며 “지금부터 시작이다. 철책 철거를 계기로 조강포구가 복원되고 남과 북의 조강리에 평화대교가 건설되고 한강하구 일대에 통일경제특구가 조성되는 게 단지 상상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반세기 만에 한강 철책 제거... '성장·발전의 김포' 새바람

철책 철거 기념식... 시민들과 자축
정하영 시장 “남북교류협력 물꼬”
내년까지 산책로·자전거도로 조성

“조강에 새로운 바람을 불고 일으키겠습니다. 김포 발전의 새로운 시작점을 만들겠습니다.”

10일 오후 3시께 김포시 누산리포구 한강변 둔지에서 개최된 '한강 철책철거 기념식' 단상에 선 정하영 김포시장의 호언이다.

정 시장은 기념사에서 “김포가 금단의 물길을 열었다. 철책이 걷히고 물길이 열리면 그래서 김포 방화해역을 따라 평화의 강주방에서 남동 경매 마니스로 자유롭게 왕래할 날도 멀지 않을 것”이라며 “개성공단을 넘는 통일전기와 특구가 조성되는 것이 단지 상상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책철거는 한강하구 일대의 역사와 번영을 되찾고 남북교류와 협력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일이라”면서 “아라마리나에서 전류리포구를 거쳐 예기봉에서 다시 대명항까지 해강안을 잇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한강변 트래킹, 가족과의 힐링산책을 현실로 만드는 등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성장과 발전의 또다른 큰 축으로 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반세기, 50여년의 세월간 존치돼왔던 김포시 북동쪽의 한강변과 남서쪽의 해안가의 군 경계 철책 일부가 철거된다.

김포시는 10일 오후 누산리포구 한강변 둔지에서 '한강 철책철거 기념식'을 개최하고 시민들과 함께 자축했다.

이 자리에는 정하영 김포시장 및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 김주영 국회의원, 박상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강하구 일대의 번영에 대한 기대와 희망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시민들 또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한강하구 일대의 발전과 번영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나타냈다.

행사 말미에는 참석자들이 힘을 모아

행사장의 철책을 당겨 철거하는 퍼포먼스도 이어졌으며, 향후 조성될 산책로 구간을 아이들과 함께 걸으며 희망의 리본을 달았다.

앞서 김포시는 민선 7기에 들어 2008년부터 추진해왔던 철책 철거와 관련 군 협의를 재개했다.

올해 7월 군과의 협의를 완료하고 일산대교~전류리포구 8.7km, 초지대교~인천시계 6.6km 구간의 철책 철거가 결정됐다.

시는 내년까지 기존 군 순찰로를 활용, 이곳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업구간에 작

전보완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작업이 완료 되는대로 철책을 철거하고 산책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중장기 계획으로는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의 잔여 철책을 철거하고 한강둔치의 생태습지 보전과 환경보호에 초점을 맞춘 산책로와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하영 시장은 “평화누리길과 경인아라뱃길을 연결하는 둘레길이 이제 만들어진다”며 “서울 한강공원처럼 조성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진균기자

‘DMZ에서 여성, 평화를 묻다’

내일 경기여성평화포럼 개최 접경지역 여성 등 30명 인터뷰

경기여성단체연합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공동주최로 오는 12일 ‘2021경기여성평화포럼-DMZ에서 여성, 평화를 묻다’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여성폭력추방주간 행사와 한국양성평등진흥원의 2021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사업인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관한 지역화의 조건 찾기 -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의 결과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관한 지역화의 조건 찾기 -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를 위해 경기도 거주 북한이탈여성, 민통선 출입·거주 여성, 지뢰·불발탄 피해 여성 30명을 인터뷰하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포럼의 1부는 접경지역 여성들이 평화정책을 발언하고, 김향미 수원평화나비 공동대표가 접경지역 여성과의 인터뷰 경험을 나눈다. 신정현 경기도 의원은 ‘경기도 평화정책과 여성의 역할’을 발표한다. 2부에서는 안태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이 민통선 여성 인터뷰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북한이탈여성 인터뷰에서 발굴한 여성평화정책을 제안한다.

끝으로 고유경 WILPF 컨설턴트의 ‘평화와 안보를 확장시키는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지역화, 사례와 과제’ 발표와 고은정 경기도의원의 발언이 있을 계획이다.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2021경기여성평화포럼은 DMZ라는 장소성이 던지는 질문에서 여성의 이야기가 빠져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말했다. 나규향기자

50년 만에 軍 철책 철거하고 김포, 한강하구 변영 중심에

정하영 시장 기념식서 포부 밝혀
중장기 시민휴식공간 조성 추진

김포시는 10일 오후 누산리포구 한강변 둔지에서 '한강 철책 철거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정하영 시장과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신명순 시의회 의장,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우리나라 미래를 선도할 김포시 학생들이 함께 해 기념식의 의미를 더했으며, 행사는 김포시청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시민들은 영상메시지에서 한반도 평화와 한강하구 일대 발전·변영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한껏 드러냈다. 이어 참석자들이 힘을 모아 행사장 철책을 철거하고, 앞으로 조성될 산책로 구간을 아이들과 함께 걸으며 희망의 리본을 달았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한강하구 일대 변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전했다.

김포시의 머리 위를 감싸고 있는 한강하구는 서해와 한강, 임진강이 만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하지만 시는 50여 년간 해강안을 둘러싸고 있는 군 철

책으로 한강을 품고 있으면서도 한강에 접근할 수 없는 유일한 도시였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오랜 염원을 풀고 한강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2008년부터 철책 철거를 추진했으나 감시장비 소송 등의 문제로 사업이 중단됐다. 민선7기 들어 군 협의를 재개했으며, 올해 7월 군과 협의를 완료하고 일산대교~전류리포구 8.7km, 조치대교~인천시계 6.6km 구간의 철책을 철거하기로 했다. 또 기존 군 순찰로를 활용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내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현재 사업구간에 작전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철책을 철거하고 산책로를 조성한다. 중장기로는 김포대교~일산대교 잔여 철책을 철거하고, 한강둔치의 생태습지 보전과 환경보호에 초점을 맞춘 산책로와 시민 휴식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현재 한강둔지는 하천 기본계획상 보전지구로 지정돼 있어 지구지정 완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정하영 시장은 "철책 철거는 한강하구 일대의 역사와 변영을 되찾고 남북 교류와 협력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일"이라며 "아라마리나에서 전류리포구를 거쳐 애



정하영 김포시장이 10일 누산리포구 한강변 둔지에서 열린 '한강 철책철거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김포시 제공>

기봉에서 다시 대명항까지 해강안을 잇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한강변 트레킹, 가족과 힐링산책을 현실로 만드는 등 시민 휴식공간을 만들어 도시 성장과 발전의 또 다른 큰 축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와 삼성SDS 컨소시엄 간 수중 감시장비 부적합 관련 소송이 8년 2개월 만에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정하영 시장은 이날 "8년간 끌어온 군 감시장비 관련 소송의 마지막 대법원 최종판결이 11일 나온다"며 "대법원에 계류한 지 3년 10개월 만에 드디어 소송이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김포=이정택 기자 lit@



10일 오후 김포시 운양동 누산리 포구에서 열린 '한강철책 철거 기념식'에서 시민들이 군경계 철책을 절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포 한강하구 철책 철거 9년 만에 재개

하성~걸포 8.7km 등 총 15.3km 구간 시, 삼성SDS 감시장비 소송 종료 후 둔치 산책로 등 시민휴식 공간 조성

철책철거와 관련한 감시 장비 소송으로 멈춰 섰던 김포시 구간 한강 철책철거가 9년 만에 재개됐다. 철거가 재개되는 구간은 전류포구(하성면)에서 일산대교(걸포동) 8.7km와 초지대교(대곶면)에서 인천시계 구간 6.6km에 설치된 2중 철책 중 군 순찰로와 접한 도로변 철책(2선)이다.

김포시는 철책철거 후 개방되는 기존 군 순찰로를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내년 말까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9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 8.4km의 철책

철거와 관련한 감시 장비 문제를 놓고 삼성SDS와 진행 중인 소송이 끝나는 대로 한강 둔치의 생태습지 보전과 환경보호에 초점을 맞춘 산책로와 시민휴식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하천기본계획상 보전지구로 지정된 한강둔치 활용을 위해 지구 지정 완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포시는 2008년 합참 승인에 따라 군 철책 제거사업에 나서 육군17사단과 고촌읍 전호리 서울시계에서 일산대교 9.7km 구간 철책 제거에 합의해 2012년 서울시계~김포대교 1.3km 구간의 철책을 우선 제거했다.

하지만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 철책철거사업이 철책 철거 후 사용될 감시 장비와 관련된 소송으로 멈춰선 상태에서 2015

년 국회 국방위원회 의견에 따라 군이 일산대교에서 용화사(양촌읍 누산리) 4.8km 구간에 이어 2018년 수립된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2단계 사업으로 제거구간이 늘면서 한국전쟁 이후 한강하구와 염하해강안에 설치된 철책 중 40% 이르는 23km 구간 철책 제거를 앞두고 있다.

한편, 김포시는 10일 오후 3시 누산포구(운양동 1245-15)에서 한강 경계철책 제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한 기념식은 김포시청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정하영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철책철거는 한강하구의 역사를 되찾는 일이자 남북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일로, 김포 발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경기문화재단 ‘렛츠디엠지’ 사업 실패 자인 ‘널뛰기’ 개최비판수감

경기도가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은 브랜드 사업인 ‘렛츠 디엠지’ (Let’s DMZ)가 올해도 ‘실패작’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도 평화협력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렛츠 디엠지 집행위원장이 강현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도의 행정을 질타했다.

의원들은 단발성 행사 개최, 집행위원회의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 사업 컨트롤타워 부재 등 사업 운영 전반을 지적했다.

김강식(민주당·수원10) 의원은 “행사를 중장기적으로 운영하고 도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운영시기가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재작년과 작년은 9월, 올해는 5월로 행사 시기가 매년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도가 추진하는 여러 DMZ 사업을 지난해부터 공동 브랜드로 묶었는데 아직 조직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지지 않고 있다”며 “사무국이 핵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조직도를 보면 집행위원회에 속하는 하나의 사업부서처럼 돼 있다”고 쓴소리했다.

이어 “사업을 총괄하는 사무국이 상시 운영돼야 하고 행사 운영은 그 하부 조직이 맡아야 한다”며 “사무국 회의조차 지속해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좋은 분들을 모셔 놓고 바지 만드냐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집행위원장으로 행사를 총괄한 강현 대표이사는 참고인 발언에서 “지금까지 렛츠 디엠지 성과로는 민선 8기 정부에서 지속할만한 가치를

보이지는 못했다”며 “도 대표 축제라는 관점에서 냉정히 제3자 시각에서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시인했다.

그는 “행사 개최 시기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정하든 특정 시점으로 확정하는 것은 기본인데, 경기도가 정무적인 논리로 판단하면서 아마추어리즘을 보인 것 아니냐”며 “새로운 전환을 위해 모든 실패 요인을 집중 분석하고, 본질적인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준영 도 평화협력국장은 “평화협력국이 신생 조직이고 산하기관이 없다 보니 대규모 사업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사무국 상설화를 통한 조직구도 체계화를 선결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도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DMZ 평화누리 자전거길로 열린 김포시 문왕동 누산리포구에서 시민들이 철책길을 따라 걷고 있다. 이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김포 문왕동 푸른 자전거길 여정이다. 윤원규기자

2021 Tour de DMZ 자전거대회 평화의 염원 안고 힘찬 레이스



DMZ 평화누리 자전거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문화재단이 주관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2021 Tour de DMZ 자전거대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평화누리자전거길 김포 (1코스), 파주 (4·5코스), 연천 (7코스) 총 3개 코스에서 1일 2회 운영됩니다.
2021 Tour de DMZ 자전거 대회에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비무장지대를 달리며 DMZ의 자연과 평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일 시: WEEK 1. 2021년 11월 20일(토) ~ 21일(일)
WEEK 2. 2021년 11월 27일(토) ~ 28일(일)
- △ 장 소: 평화누리 자전거길
김포 (1코스), 파주 (4·5코스), 연천 (7코스)
- △ 참가접수: 2021년 11월 4일(목) ~ 2021년 11월 17일(수)까지
- △ 참가신청: 홈페이지 www.tourde-dmz.com

경기일보

드란... 고교학점제 '험로'

선... 앞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양주의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수업과 내부 학점제 복수제공 이수에 대해서 아직